

<2011년 2월 4일 금요일 새벽 잠언>

* 2월 5일 토요일 잠언과 같이 보세요.

1. 패역한 인생들... 썩는 쓰레기통같이 썩어 가며 사랑하고 먹고 취하며 자기를 즐겁게 하지만, 썩어 맛이 변하여 그나마 끝이로구나.

2. 이성 사랑도, 세상 사랑도 꽃과 같다. 이성에도, 세상에도 자기가 좋아서 몸과 마음을 던지며 미련 없이 뛰어든다. 때가 되어 꽃이 지고 눈보라 치고 북풍한설 몰아치니 자기가 못 견디고 곤고함과 회의와 허무를 인정하고 인생길을 찾는다. 그러나 그때는 깊은 사망의 계곡을 홀로 나와야 되니 후회로다. 고독과 쓸쓸함과 두려움과 떨림이로다.

그리고 생각한다. ‘내가 도깨비한테 귀신한테 홀려 갔었나?’ 한다. 다시 인생길을 찾아 나오지만 무거운 죄 짐만 지고 허무함과 허탈감에 나오는 길이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괴롭겠느냐. 이는 마치 모르고 좋아서 자기 스스로 강패들한테 끌려가다가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당하고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

3. 돈도, 사랑도, 명예도, 환경도 영혼의 곤고함과 인생의 곤고함과 마음의 곤고함은 해결할 수 없다. 그것들은 순간 목마를 때 물을 먹는 격이요, 순간 배고팠을 때 음식을 먹는 격이다. 영혼과 마음을 채우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을 받아야 된다.

4. 인간이 이성의 사랑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마치 아토피 피부병 환자가 피부가 가려울 때 박박 긁어 주는 것과 같다. 아무리 긁고 또 긁어서 시원하게 해도 계속 긁으면 살만 헐고 피가 나오고 더 괴롭다. 근본 피부병이 나아야 마음이 시원해지고 곤고함과 고통이 아주 없어진다.

이와 같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혼이 치료되어 영과 마음이 건강해져 시원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주님과 사랑이 이루어져 인생 근본의 곤고함이 해결되어 낙이 오고, 인생 근본의 사랑이 해결되어 기쁘다.